

금주일언 어찌 적히는 상처를 입
음이 있으랴만 마음이 마
치 병에 걸린 듯 아파서 갖가지 재액(災厄)
과 어려움을 만나도 도리어 잠만 자고 있다.
(법구경·교학품 25절)

東大新聞

구 별 성 명 일	구 별 성 명 일	구 별 성 명 일	구 별 성 명 일	구 별 성 명 일	구 별 성 명 일
구 별 성 명 일	구 별 성 명 일	구 별 성 명 일	구 별 성 명 일	구 별 성 명 일	구 별 성 명 일

제 1196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6년(불기 2540년) 4월 1일 (월요일)

서울캠 총학, 처실집기 반출

등책협 구성등 요구

등록금문제가 정점에 치달았다. 지난달 29일 서울캠퍼스 제28대 총학생회 출범식을 마친 학생들은 실천행사로 등록금저축협회의 구성과 부당인상권 등록금인하를 주장하며 본관내 교무처, 관리처, 총무처, 학생처 등 4개처실과 기학실의 집기를 학교직원들과의 마찰속에서 중앙도서관으로 끌어냈다.

출범식 전날 학교측과 총학측은 등록금 7차협상을 교무위원회의실에서 가졌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총학측은 △95년도 결산서 공개 △등록금저축협회의 구성과 예·결산 공개의 정례화 △부담한 등록금 인상요인 해소를 위한 재단전일급 확보 등 세개의 최종요구안을 제시했고 다음날 출범식장에서 송석구총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측은 그 자리에서 등책협 구성에 대해 "전 교수회를 거쳐야 하는 예민한 문제"라며 "기구라는 조직보다 현재의 같은 회의를 통해 학교발전을 위한 논의자리를

지속적으로 갖자"고 말했다. 재단전일급확보에 관해서는 "재단도 애쓰고 있는 형편이고 직원들도 봉급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환원하는 등 힘쓰고 있다"며 등록발전을 위한 구성원간의 이해를 당부했다.

또 95년도 결산서는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측대표로 참여했던 '구장주 야간강좌학생회장도 "발전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내부적모순과 외부적모순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부모순으로 '무한한 재단'과 외부모순으로 '정부의 교육재정미비'를 지적해 학교측의 의견과 달랐다. 이어 "내일 학생들은 정부를 향해 교육재정확보투쟁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다음날 송석구총장은 제28대 총학생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출범식장에 섰다.

그러나 학생들은 최종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송총장은

"차후 자리를 마련할테니 그때 논의하자"며 자리를 떴다.

학생들은 출범선언문장을 끝으로 출범식을 마치고 실천행사를 가진 뒤 한층더 총력기투쟁에 합류했다.

김준철(야간강좌 경영4) 학원자주회부회장장은 7차협상직전 "이번 협상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있어 학교측과 총학측의 마찰은 단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지난달 27일 김영삼정권타도 및 자본의 교육장악저지를 위한 1만학우 실천결의대회를 뉴욕에 가졌다.

등투에서의 방향을 전환하여 교육개혁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했으니 현재 학우들의 인지부족과 함께 등록금부문을 포기한 것은 너무 시기에 맞지 않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총학생회는 오는 3일 오후4시 원효관 대강당에서 가지는 출범식을 통해 4·3항쟁 기념 및 노수석 열사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직원 인사 단행

처·과장 및 계장급등 대폭

학교당국은 보직인사발령에 이어 지난 20일자로 대대적인 직원들의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이동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직위승진
△학생처 학생부처장서리=선상규 △분당한방병원 사무국장 서리=문철 △법인총무과장서리=안재봉 △학생처 학생과장서리=문옥래 △관리처 후생복지계장서리=송승수 △산업기술대학원 교학계장서리=박만규

(경주캠퍼스)
△금강산관광 계장서리=한병모
◇처·과장급 전보
(서울 캠퍼스)
△교무처 교무부처장=신일식 △총무처 총무부처장=박종환 △교육대학원 교학부처장=손상길 △정보산업대학원 교학부처장=류종은 △기획조정실 기획과장=신봉근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장=차준환 △학생처 취업과장=김철서 △총무처 비상계획과장=김종진 △관리처 구매과장=최창호 △이부대학 교학과장=이강현 △역경원 업무부처장=오복용 △사사무처 관제과장=김승기 △동국인턴한방병원 사무과장=황우열 △포항병원 경리과장서리=김영인 (3월1일자 발령)

(경주캠퍼스)
△교무처 교무과장=조원생 △사사무처 경리과장=차선규 △학생처 장학과장=김근수
◇계장급 전보

(서울캠퍼스)
△기획조정실 기획계장=김성근 △교무처 수업계장=한운우 △총무처 총무계장=오광진 △관리처 관계계장=김계현 △분당대학원 교학계장=박동수 △영명대학원 교학계장=김영민 △분당에속대학원 교학계장=박광호 △분당대학 교학계장=나병욱 △사회교육원 교학계장=이광우 △동국한방병원 사무계장=김종백 △법인기획관리과 기획계장서리=박근서(3월1일자 발령)

(경주캠퍼스)
△기획총무계장=신익종 △교무처 수업계장=박두관 △교무처 학술연구계장=박승필 △학생처 취업계장=박광하 △분당문화대학 교학계장=신태용 △한양외국어대학 교학계장=이철우 △이부대학 교학계장=주재권 △기초과학센터 관리계장=권대홍(4월1일자 발령)

◇직원급 전보
(서울 캠퍼스)
△교무처 교무과=최광재, 박순선 △대학원 교학부=김경대, 김용석, 백승규 △사회교육원 교학과=고재선 △컴퓨터교육원=신영배 △교무처 학적과=이연주 △연구기획처 연구부=김철진 △연구기획처 학술교류부=원종희 △관리처 관제과=김광희

(경주캠퍼스)
△교무처 교무과=한동주, 최수호 △학생처 장학과=박치만 △금강산관광=김한경 △기획총무과=권영섭 △교무처 학술연구부=김경표

경찰 무력진압...노수석군 숨져

한총련 비상대책위 구성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은 학생들을 비롯한 온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정부의 시위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9일 한총련(의장=정명기·전남대학교총학생회장) 총력기 투쟁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연세대 노수석(법학2)군이 사망하는 한편 부상자와 불법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대한극장 앞에서는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주장하던 본교 학생 24명이 경찰의 폭력진압속에 연행됐다.

한 시민은 "총선을 앞두고 학생들의 주장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김영삼정부의 조기진압명령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있다"며 현정부를 비판했다.

사망한 노군은 경찰의 무력진압 중 피격로 대한문화사 앞에서 살신한채로 발견, 국립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중 숨진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측은 육안검사 발표에서 "커다란 외상의 흔적은 없고 무릎과 손가락에 약간의 활과상을 입었

다"고 밝혔다.

아직 사체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목격자들은 "경찰들의 구타가 있었다"고 밝혀 사인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군이 다니던 연세대학교측은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을 계획중이다.

한편 한총련은 노수석군 사망과 관련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보장 교수제 시행

서울 경주 총 2백 33명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교수들에게 재임용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96년 3월 1일 이전에 정교수로 임명된 신입교수에 한하여 3월 1일자로 정년을 보장하는 정년보장 교수제를 시행한다.

해당교수는 서울 1백73명, 경주 60명으로 총 2백33명이며, 총장이 이사장 대행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오늘(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임용장을 수여한다.

지금까지 교수임용기간은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5년, 정교수는 7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정교수의 경우, 임용기간이 지나면 재임용심사를 거쳐야만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재임용심사는 연구실적과 근무성적 및 기타부분의 평가에 의해 이뤄졌으나 이 심사는 평가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교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개

선의 소지가 많았다.

정년보장교수제는 임용기간이 보장되는 반면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해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해택이 주어진다.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정년보장제가 적용되는 교수들이 처음으로 혜택을 받게 될 2001년까지는 세부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년보장교수제 시행에 대해 교수회(회장=이순용·법학)측은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며, 교수업적평가 규정 마련에 있어서는 "평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연구업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양적평가가 아니라 질적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의 뜻을 전했다.

또한 "제대로 된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종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수

너도 나처럼 소중하다

자기도취 또는 자만을 뜻하기 도하는 나르시시즘은 끝날 성숙치 못한 인격 또는 그런 정신적 상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야 한다. 성인으로 추앙되는 사람들 많고 자기에(自己愛)를 갖지 않는 인간, 그것에 초연한 사람이 과연 있거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인간 삶의 현실이란 어쩌면 모두 자기에 빠진 나르시시스트들의 투쟁과 갈등 아니면 협력과 조화의 장(場)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같은 인간의 한 속성에 관해 붓다는 일찌기 그것을 통찰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상치한 지 않고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간명하게 가르치고 계신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라도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 가든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더 없이 소중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사랑스러움을 아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 상용부경전 3에 실려있는 이 계승은, 고살라 국왕 파세나디와 그의 비마리카에게 들려 준 붓다의 말씀이다.

왕과 왕비는 어느 날 궁궐의 누각에 올라 조망을 즐기면서 인간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무

엇인가를 주제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 끝에 이들이 도달한 결론은 그것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점이었다. 두 사람은 제타술에 계시는 붓다를 찾아가 이에 대한 판단을 청했던 것인데, 이때 붓다는 바로 이같은 계승으로 셋 이들에게 대답하신 것이다.

셋이 묻자, 그것에 초연한 일이지만, 붓다는 왕과 왕비의 결론에 깊이 공감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 인간 예고(自我)의 진실이랄까,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붓다의 이 대답의 핵심은, 그것에 이어지는 담양적요청의 문체에 있다.

누구에게라도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분명한 사실은, 나 아닌 남에게 있어서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자칫 망각하기 쉬운 이 점에 대해 붓다는 '자기가 사랑스러움을 아는 사람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쉬운 언어로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다.

자기에만 결코 약이 아니냐. 그러나 남의 소중함을 인정할 줄 모르는 것은 인간 전체에 대한 해악이다. 사람들이 상처 주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붓다의 위 계승한 말씀 가운데 이미 극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봉 춘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이상현 대일경기 선취골

한국팀 승리 견인차



본교 재학생인 이상현(일문·3) 선수가 지난 27일 팔라루루에서 열린 올림픽 예선 일본과의 결승경기에서 틀림없는 헤딩슛으로 선취골을 터뜨려 일본을 제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물론, 동양인들에게 큰 긍지와 기쁨을 안겨 줬다.

이상현 선수는 이라크와의 준결승서 이마가 찢어져 6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끈진 이마로 컷골을 얻어내는 투혼을 발휘했다.

중앙수비수가 포지션인 이 선수는 부평고 시절부터 청소년 대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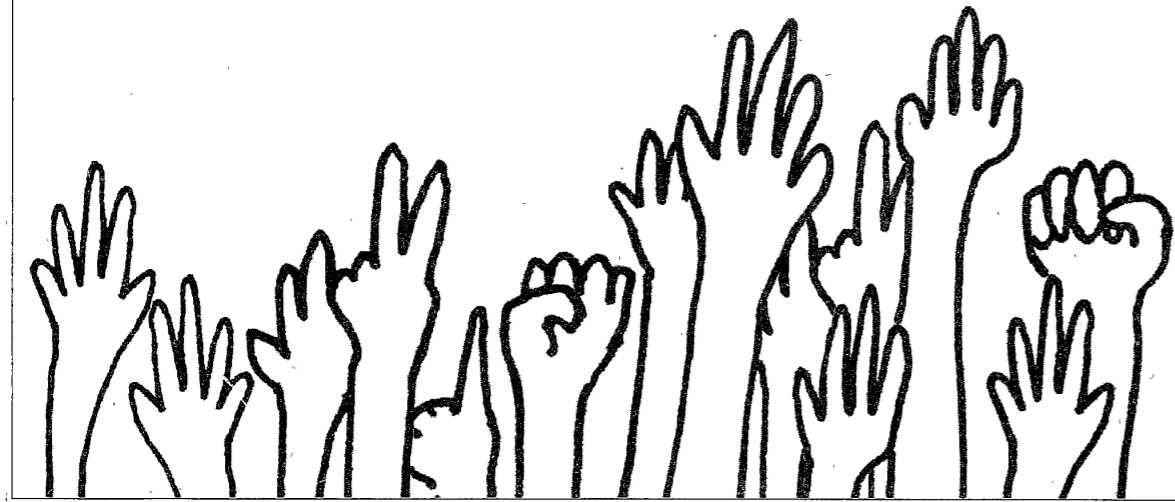
활약했으며, 지난 11일 올림픽 대표로 발탁된 이후 뛰어난 점프력과 헤딩력으로 예선 평가전마다 훌륭한 재능을 견지해 왔다.

본사사령

- ◇명
- ▲ 편집장=곽주영(이과대 통계4)
- ◇임수술 기자
- ▲ 심미선(문과대 영문1)
- ▲ 김경미(문과대 독문1)
- ▲ 최정희(문과대 독문1)
- ▲ 김태균(공과대 공학계열1)
- ▲ 신유현(예술대 미술1)
- ▲ 조진희(불교문화대 불교아동1)
- ▲ 배주영(인문대 인문학부1)
- ▲ 이해경(상경대 경영학부1)
- ◇의원면직
- ▲ 편집장=박대웅(경상대 무역3)(이상 4월 1일자)

저요! 저요!

개교90주년, 제가 빛내겠습니다!



개교90주년기념행사 자원봉사자 모집

동국대학교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 21세기를 향한 동국100년의 비전을 펼칠 개교90주년기념행사의 홍보활동 등에 참여할 학생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대상	·단체별 참가자: 동아리/법/과별/교동문회별/기타
개별참가자	·재학생 및 유학생
활동내용	·각종행사홍보, 행사장 안내/실시여지

개교90주년 주요기념행사	·KBS열린음악회: 1996. 5. 7(화) 18:00(대운동장) ·윤이상불교음악제(雨天 거리의 하늘을 날아) 1차: 1996. 5. 15(수) 19:00(아민도BBS홀) 2차: 1996. 5. 17(금) 17:00(불상당) ·(선전) 동국100년후원의 밤: 1996. 5. 29(수) 18:00(일빛호텔)
신청안내/접수	·신청서(신청양식·학생과비지), 시전 1매 ·학생과(본관 3층, Tel: 260-3047/8)
신청기간	1996. 4. 1(월) - 4. 12(금)
활동기간	1996. 4. 15(일) - 5. 31(금), 기간중 장기간 활동 또는 행사별 참여
비고	·가장사업총괄도록에 참가/비 명단 수록 ·활동내용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및 기념품 지급

동국대학교

개교90주년기념행사집행위원회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계사파이나 ID: dpress@eil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급성 임파선 백혈병으로 위독한 학우가 우리결에

Rh-O형 혈액과 헌혈증서 필요

성덕 배우만을 기억하십니까?
최근 인간사대를 통해 가슴 뭉클한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성덕 배우만, 미국으로 입양된 성덕군이 미국 공군사관학교 4학년이 되는동안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친구로 성장하였지만 백혈병이라는 병으로 인해 모두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송되면서 양국인 전체의 관심속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TV속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친구 아니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가 지금 급성 임파선 백혈병이라는 병으로 우리 학우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야)4학년에 재학중인 김윤호학우, 그러나 지금은 시한부 인생이라

지금 있어 할 학교의 교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입원을 하였지만 김윤호군의 혈액형이 Rh-O형이라 구하기 힘든 혈액으로 3월27일 오전에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급성 임파선 백혈병은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므로 현재 계속적으로 혈액을 지원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학우가 바로 옆자리에 서 같이 공부하며 같이 웃고 어려움에 같이 헤쳐나갔던 우리들의 학우가 지금 병원 침대에서 우리들과 즐거웠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외로이 밤을 이기기 힘들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
몇몇 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송승일선수.

그도 여러분의 기억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혈병이라는 병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짧은 나이에 아름다운 청춘을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학우, 김윤호학우를 위해 우리가 할일은 이런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 Rh-O형의 혈액을 구해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헌혈증서를 가지고 계신 학우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도움을 주실분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야간강좌 총학생회(770-2598, 012-590-9437)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남
(야간강좌총학생회총학생회장·경영(야))

백백한 강의실서 무리한 수업

참된 교육 위해 합당한 조치 있어야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린 초과 인원 수용으로 인한 강의실 부족문제는 학기초부터 누구나 겪는 당연한 일 중 하나이다.
이런 현상은 입학 때부터 몸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나쳤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와 학교당국의 졸속적인 미봉책 대안에 분노감마저 느낀다.
지난 3월 12일 B04에서 교양과목 수업이 있었다. 네모난 강의실에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수십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잃어 서서 들어야 했다. 교수님은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강의하셨고 웅성거리는 학생들의 소리에 분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주 수업을 듣기 위해 갔었던 강의실은 황당무계 그 자체였다. 상황은 지난주보다 심각했다. 여전히 수십명이 서서 듣고 수십명이 밖에서 우왕좌왕하고 교수님은 수업이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똑똑 빼어냈고 밖에서 지친 학생들은 불평 한마디씩 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이 상황이

라면 강의실을 바로 옮기거나 수업을 연기해야 할 형편상이다. 비추어 옳다고 본다. 학교측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학사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교양강좌지만 풍나를 시투의 모습이 되어버린 수업, 학생들이 밖에서 갈팡질팡 거리는 데도 강령적으로 밀고 나가는 진도 위주의 수업, 밖에 있는 학생에게 출석 증거의 쪽지만 남겨두고 가려는 오로지 출석만이 목적이 되어버린 수업 등, 이런 모습이 과연 참된 교육현장인가?
공간도 교수채용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정원을 늘리고 편의성을 1천여명 이상 뽑았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나. 학생들의 후생복지와 면학분위기는 뒷전이고 재학생들을 위한 금전만이 최고라는 안일한 사고로 학사행정을 계속 운영해 나간다면 이러한 사소한 일이 아닌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든다.
서영수
(생명정치학과 생명자원경제학과)

이것이 진짜 거짓말

(악플로 인해 내가 만약 좋은 후보자라면)

- ▶ 강의실 정말 크지? 그 많은 인원이 다 앉아서 수업했다.
- ▶ 전두환이 청렴결백상을 받았다는데?
- ▶ 학부제로 전공을 여러개 할 수 있다는 학부제 취지와 등록금 인상분을 경주캠퍼스에 맡겼다는 얼토당토한 말씀.
- ▶ 일본: 독도는 우리땅이다.
- ▶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거짓말이고 한국에서
- ▶ 참말이다.
- ▶ 잘난 정당후보자 왠 "유권자가 세계일류된 정치가 세계일류"
- ▶ 학교는 돈보다 학생을 생각한다.
- ▶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
- ▶ 미국은 한국의 우방국이다.
- ▶ 전시중에 63빌딩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면 남산타워 밑에서 후레쉬맨이 나타난다.

동/문/칼/럼

희생제물이 된 기쁨(?)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생행로를 달려가고 있다.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행로인 것이다. 이러한 인생행로의 시계는 출발시에는 아주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여 삶을 거둬들일수록 가속이 붙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그 누구도 정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마지 속도가 더 이상 표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정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생행로를 달려가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과 연을 맺으며 모든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개구쟁이 시절의 악동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동문으로 구분되지만 이중 대학 4년이란 시기는 어떠한 시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다.
이렇게 중요한 학창시절이 우리세대는 그 어떠한 세대보다도 참으로 어렵게 보낸 것은 나만의 생각이기보다는 그 시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거의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학문을 탐구하고 지성을 논하기에 앞서 입학과 동시에 시대상환이 우리를 한데 묶어 캠퍼스내에 잡아두지 않고 밖으로 내몰면서 한일합방때부터 3년개헌만 대까지 데모와 휴교로 정찰된 4년간이었으니 말이다. 이러한 상

황하에서도 대학생활은 중학교와 달리 입학할 때부터 재수생과 당해년도 입학생으로 구분되었고,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이젠 재학생과 복학생으로 나뉘기며 서로간의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과는 다른과는 달리 재학생과 복학생의 공존하는 학생생활이 고대 다른과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원만하게 지속되었다. 이러한 공존의 생활에는 복학생의 노력도 중요하였지만 재학생들의 협조가 보다 많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지금도 그 당시 재학생 학우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물론 복학생들 모두가 재학생의 악의 아닌 골방머리가 작전에 한두번씩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복학생들은 3년간의 공백을 배우기 위하여 늦은 시간에 학교다니느라 일찌감치 학교 앞 주점에서 진을 치고 오늘날의 희생제물을 분석하고 재학생들의 기습작전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선배로서의 넉넉함과 포근한 감싸주는 마음으로 재학생들은 존경과 믿음의 마음으로 서로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인생과 사회를 논하면서 서로간에 정이 더욱 두터워졌는지 모른다. 지금도 캠퍼스에서 재학생과 복학생이 나뉘어 함께하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인생행로를 역으로만 돌릴 수 있다면 동양의 캠퍼스들로 내리던 학창시절로 돌아가 다시 한 번 학생의 제물이 되고 싶은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었지만 이젠 재학생이 복학생이 시작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행로의 시계를 누가 되돌려 줄 수 있을까?
김현권
(한국 석유화학공업협회 경제71팀)

제한된 공간에 늘어난 인원

학부제 취지에 맞는 제반 여건 갖춰져야

학부제의 진정한 희생자는 역시 새내기다. 우리 동국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중추세력인 우리 새내기들에게 우리 동국은 학부제의 허울 속에 새내기들에게 쾌적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영문과의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 영문과는 531교육개혁안에 맞물려서 전국 각 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학부제라는 틀에서 제한된 공간과 늘어난 인원을 기존의 인원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비단 영문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학부제'하에서 '세계화'라는 구호는 가장 잘 어울리는 배경이었고 이런 제도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단순히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학생운동이 역사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또 민족적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당차고 올바른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하에서도 우리의 선배들은 최선봉에 섰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젠 10년에 달하는 부정부패의 구심점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자랑

찬 우리의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는 한낱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한 이기 집단의 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단언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한경쟁을 내세우고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현실에서 영문과는 새내기들에게 단언 인기가 높았을지 모르지만 사실이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 제반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다. 인문과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영문과이고 또 인문학과 관련 거기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교수충원같은 문제는 학부제로 병행된 지형에서 이미 사전 조율을 마쳐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인문학부 3998명중 2백여명이 영문과를 가기를 희망하여 영문과 전공 수업을 듣는다. 영문과 전공 강의실 하나 없이 풍나물처럼 A302 A322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전공과목을 강의 하시는 교수님은 어떠한가를 생각해보자, 갑자기 몇배로 늘어난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하시게 되었고 이것이 학부제화 되면서 생겨난 예상치 못했던(?)현상이다.
이렇게 많은 인원과 늘어난 수업시간을 여전히 학과에서처럼 한

분 교수님이 맡고 계신다. 이런 강의가 정상적인 강의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학교 3주체의 사전협의도 미진한 상태에서 학부제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 취지에 맞는 최소한의 제반 여건이라도 갖춰질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제 눈을 인문과대학내의 다른 과로 돌려보자, 우리 과 전공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인원이 몰려들던 다른 과에서는 그 과의 전공수업을 듣는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다른 소위 비인기 학문 분야는 없어지거나 쇠퇴해도 된다는 것인가? 역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내역시 풍나를 강의실에서 백백이 앉았는 새내기들을 보며 선배로서 안타까움과 함께 학교당국의 무성의함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동국인들이 느끼리라 생각한다.
우리 일만 동국인은 거창한 모든 정당성을 차지하려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보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다.
서성은
(인문과대학 영문학과)

서울대 지원 특별법

대학 서열화 부채질하는 권위적 발상

최근 신문사상에 서울대 폐교론에 대한 한 교수의 기사가 실려 아주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조금은 위외의 심정으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문체의 발단은 서울대 모교수가 서울대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집중적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서울대 지원 특별법"제정이라는 제도화된 틀로 안착화 시키려는 발상에서부터 기인한다.
사실인즉 국가에서 전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 서울대학교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대 특별법"의 내용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일류 이류의 서열화된 구조로 분류되었던 특색에서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고등학교에 있어서 전인교육이 불가능해지고 입시교육위주의 수동적 학문 탐구 그리고 집중화되고 편중된 인재들로서 야기되는 권위주의적 사회 성격, 그러한 제반 모

순들이 교육의 문제나 대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풀려하지 않은 채 인재양성에 대한 환상은 사회적 파급효과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현재 대학의 서열화된 구조 자체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도 상당한 데 새로운 일류법을 양산하려는 생각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 재학생들 반수 이상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표하였다.
간관이나 이류표를 보고 선택한 대학에 대한 환상의 깨어짐,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과반수 이상이 고시 준비를 하는 서울대 현실, 그러한 모습속에서 과연 서울대 지원 특별법의 발상은 얼마나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며, 얼마나 큰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김종길
(법과대 법학과)

목먹골

- 오마르의 두 번째 낙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지만 응서는 안 됩니다. -?
- 38기 너무도 예쁜 경미랑 미선 이랑 태균이랑 윤희이랑 정식이의 입사를 하늘만큼 평만큼 축하해요. 앞으로 힘든일이 닦치더라도 처음 결심 그대로 계속 열심히 하기를... -병창고 선배
- 영아의 득남을 축하합니다. - 화공과 학생일동&일만 동아인
- 만우절에 태어난 우리의 '머과'의 법칙' 제발 이번 생일은 아무도 안 믿는 그런 '머과'의 법칙같은 생일이 안되길 빌면서... 내가 태어난 날! 정말 축하한다. 4월1일 바로 오늘! 불상앞에서 만나자. 푸하하 작년 너의 모습이 떠오르느니라. 각오 하길 바란다. -너로 인해 위안을 받고있는 37기 동 기중 하나기
- 공장의 애인, 안세영양의 3월 27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9
- 아영언니! 풍물패 가업 정밀정 말 축하해,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길... 복치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 -법통들
- 지은이랑 지연이의 일년을 축하합니다. -고

그리고...

- 발대식을 그렇게 저질적으로 하구나. -우역
- 무역학과 몸조심 하구라! -경영 아니 지프가이냐 가요?
- 상경이형 멧은 있는데 신변에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형을 걱정하는 후배
- 한민족이여 분발하라! -
- 잠실고 동문회 뒤져버렸다. 28(목) 5시에 만세시비로! -Room 대장이
- 개나리,진달래 등을처럼 희망의 봄을 품고 푸릇푸릇, 도란도란 생활하는 불교학부 새내기들, 진정 사랑합니다. -Room 대장이
- 2002 WORLD CUP KOREA -
- 그래요, 나 좋으면 좋다가 그래, 자꾸 접착이 미꾸...받아줄게. -Y-H 16기 Princess
- 16기 유스인! 너무나무 사랑한다. I LOVE Youthhostel! -

다향관 식당

1(월)	연두부찌개(900)	명파어찌개(1,000)
2(화)	소고기국밥(1,000)	짜장면(1,500)
3(수)	잔치국밥(900)	오징어국(1,000)
4(목)	사골곰국(1,000)	양동야채찌개(1,200)
5(금)	후	후
6(토)	후	해초비빔밥(1,000)

교직원식당

1(월)	오징어찌개(250)	두부김치찌개(230)
2(화)	김치찌개(270)	멸우의 밥(220)
3(수)	파스타(250)	후이(250)
4(목)	피조기스(300)	완자볶(250)
5(금)	후	후

학생식당

1(월)	육통나물(900)	문어수(1,000)
2(화)	공양밥(1,300)	고구마김치(900)
3(수)	소고기국밥(900)	화양밥(1,000)
4(목)	대구매운탕(1,000)	마파두부(900)
5(금)	후	후

동/약/광/장

- 진선아! 생일축하한다. M-T 재미있었니? 앞으로도 잘 지내자. 힘내라. -해
- 3월25일이 어느날이게요? 바로 임성욱군의 생일이지요. 예가 누구냐고요? 비밀! 암튼 축하해요. -BEAUTY
- 4월3일 내친구 승혜의 생일입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후배 인선아도 승혜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twoen
- 제38기 수습기자 해경이, 선희, 주영이 환영식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 식구들을 축하드립니다. -형들
- 신문사 수습기자, 시립교편위 수습위원, 방송국 수습위원 모두 반갑구요. 언젠가 한 번 멋진 만남이 되시죠. -제7대 연협
- Moncl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Mock
- "블워" 신입생여러분. 블워인이 되신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모습 기대해요. -"블워"를 지켜보는 이가
- 의과분과 최수선배아들 동규, 백일을 축하해요. -의과과 한두레일동

은방골

- 오마르의 두 번째 낙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지만 응서는 안 됩니다. -?
- 38기 너무도 예쁜 경미랑 미선 이랑 태균이랑 윤희이랑 정식이의 입사를 하늘만큼 평만큼 축하해요. 앞으로 힘든일이 닦치더라도 처음 결심 그대로 계속 열심히 하기를... -병창고 선배
- 영아의 득남을 축하합니다. - 화공과 학생일동&일만 동아인
- 만우절에 태어난 우리의 '머과'의 법칙' 제발 이번 생일은 아무도 안 믿는 그런 '머과'의 법칙같은 생일이 안되길 빌면서... 내가 태어난 날! 정말 축하한다. 4월1일 바로 오늘! 불상앞에서 만나자. 푸하하 작년 너의 모습이 떠오르느니라. 각오 하길 바란다. -너로 인해 위안을 받고있는 37기 동 기중 하나기
- 공장의 애인, 안세영양의 3월 27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9
- 아영언니! 풍물패 가업 정밀정 말 축하해,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길... 복치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 -법통들
- 지은이랑 지연이의 일년을 축하합니다. -고

알립니다

- 동국대학교 제2차 공개오디션 3월28일 목 5시 소강당 II에서 합니다.
- DUCCO M-T잡니다.
- 영주향우회 모임입니다. -신입생 96학번 경성B 박현수 출름 취우-오
- 4월5일날 필하모니 M-T가요. 필하모니 여러분 열나게 놀아주세요! -성진동 불나방
- 용산고 동문을 찾습니다. -015-920-6517
- 자유: 일어일문학과 연협M-T 연양 가지산으로 간대요. 인문과학부 신입생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일문과 브레드 피트
- 검은색 장지갑 찾습니다. 신분

그리고...

- 산배주 팜에 고생한 후배님들...사랑합니다. -불워 인
- 준석이오빠 꼭 시험 합격하세요. -오빠를 사랑하는 어느후배
- 산-안-공 3학년 과제표 화이팅! -3학년 일동
- 사복과 2학년 과제 윤태조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민

축하합니다

- 민중사랑 입방식 축하. -평
- 독문과 조기취구회 발족을 축하합니다. -예쁜 독문과 학우
- 제28대 총학생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독문과의 어떤 학우
- 제38대 동대신문사 수습들의 입사를 축하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길 바라며, 경미, 미선이, 정석, 태균, 해경, 선희, 주영이 모두 열심히 하길...

수고하셨습니다

- 2002 WORLD CUP KOREA -
- 그래요, 나 좋으면 좋다가 그래, 자꾸 접착이 미꾸...받아줄게. -Y-H 16기 Princess
- 16기 유스인! 너무나무 사랑한다. I LOVE Youthhostel! -

축하합니다

- 소낙비 후배님들 영화제 하느고 수고하셨습니다. 말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HAHA
- 지난 22일 제7대 연협회의 출병식 하느라 각 집합국장님 및 이하 위원님들 무지무지 수고 많으셨어요. 참된 시작,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長
- 헌혈증서를 기증했습니다. 학우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만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
- 양정·성문 4월3일 동문회합니다. 꼭 참석바랍니다. -동문회장백
- 산배주 팜에 고생한 후배님들...사랑합니다. -불워 인
- 준석이오빠 꼭 시험 합격하세요. -오빠를 사랑하는 어느후배
- 산-안-공 3학년 과제표 화이팅! -3학년 일동
- 사복과 2학년 과제 윤태조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민

시사논단

민의 저버리는 방송의 왜곡성



김동민
신간연 집행위원장

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있다면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 영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막연하게나마 상당한 수준일 거라는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한국처럼 정당에 대한 관심이 높고 부동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TV는 정치에 부정적인 기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알맹이와는 다르게 포장된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편파성까지 가미된다면 유

전달보다는 이미지의 전달에 열심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TV 뉴스가 정당의 활동을 보도할 때 정당의 시간의 배분은 유권자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방송사에서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대로 (예를 들면 3:2:1:1), 즉 현재 국회의 의석 수 비율을 기준으로 차별성을 둔다면, 이는 곧 현재의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시청자들에게 보다 많이 노출된 정당이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선거란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새로운 선택이란 점에서, 국민들이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를테면 백자상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정당간 차별적인 시간의 배분은 유권자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차원에서 TV 뉴스는 시간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입견을 심어준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선거 시기에 정당간 균형있는 보도는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방송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총선보도 불공정·편파보도 일삼아 '뉴스가치' 존중, 방송질향상 이뤄야

권자의 판단을 호도하고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방송의 4·11총선보도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당에 편향되어 있으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여당을 선호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시간배분의 편파, 대통령통제의 남발, 선심성 공약의 무조건 부풀리기, 근거없는 대부경계심 고취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방송법 제5조 1항을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에는 "방송이 사회적인 정경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관련된 집단이나 개인의 의견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사회적인 정경'의 측면에서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선거만큼 딱 들어맞는 정경이나 사안도 드물 것이다. 그렇다만 정당의 활동을 균형있게 보도해야 하고, 이 때 균형이란 시간배분의 균형도 당연히 포함된다.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TV 뉴스는 중요한 정보원의 하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TV는 가장 감성적인 속성을 가진 매체로서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다. 감성에 호소하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TV 뉴스는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할만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TV 뉴스는 특히 정보의

선거방송기준을 보면, 동등시간의 준수율 원칙으로 하고 뉴스에서는 뉴스가치에 따른 방송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의석수 기준은 이 방송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의석수 기준이란, 원칙적으로 여당 편향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사로 시청자단체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고안해낸 근거없는 기준이다. '뉴스가치'에 따른 보도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뉴스가치 기준을 완전히 묵살한 채 의석수 비율이란 근거없는 기준을 내세워 여당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어떻게 다수당이라고 하여 매일같이 가장 높은 뉴스가치를 생산할 수 있던 말인가? 오늘날 변함없이 자랑되고 있는 이 편파적인 배분이 우연일 수 있는가? 뉴스가치에 따라 어느 당이라도 비중있게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방송사는 지금부터라도 기자가 당연히 존중해야 할 뉴스가치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여당에 불리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다든지 반대로 야당의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도 고약하다. YS의 대선자금 문제나 장혁로 사건은 축소지향으로 다루는 반면에 야당의 공천 후유증이나 공천헌금 등은 근거도 없는 가운데 부풀리기에 열안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TV 뉴스를 보지 않거나 아예 TV 수상기를 꺼뜨려버려야 할런지도 모를 일이다.

◇한총련 총노선 해설

96년 자주·통일국가 건설시대로 설정 반미·반김 투쟁, 대중운동 다양화 제시

유령어는 가끔 세인들에게 관심거리가 된다. 사람들이 구성하는 집단을 유령어를 통해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총련도 유령어를 만들어낸다. '민족사적 대전환기', '민족화해와 대단결' 등이 작년 한총련에 의해 유령된 말이다.

한국학생운동의 일대 도약으로 기억되는 전대협 1기 출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96년에 제4기 한총련이 만들어낼 유령어는 무엇일까? 한총련의 메카니즘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공중증을 풀기 위해 각 대학 정·부총학생회장과 단대학생회장들이 참석하는 대의원대회를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한총련 1년 사업을 포괄하는 총노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총련은 96년을 "자주시대"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에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며 자신들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민중들의 요구가 커져가는 반면 미국은 항공

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에 대해 많은 대의원들은 96년 정세분석, 시기규정 그리고 총적기치까지 올해 한총련의 총론적 사업 방향에 중심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 부총학생회장은 "상정된 총노선(안)이 총체적 핵심을 틀어쥐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민의 자주적 요구가 드높아지고 미국과 김영삼의 식민지 지배가 노골화되는 지금, 김영삼 타도 투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노선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이견차가 실제로 잘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이견의 제출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총노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찾아가는 모습을 견지했다. 이른바 '한총련 식의 토론 단결'이었다.

96년 정세에 대한 열린 논쟁과 합의는 올해 한총련의 목표와 과제에 이어졌다.



모함, 핵잠수함 배치 등 군사적 긴장 상황 조성과 경제적인 개방압력 강화를 통해 제국주의적인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한총련은 "김영삼정권은 지난 3년의 모순에서 우리 민족과 인연이 없으며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악에 눈치나 살피는 행태를 보였다"라며 "총선과 대선을 앞둔 현시기에 김영삼타도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강원대에서 진행된 '제4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하기가 그리 쉽지않은 않았다. 그 저변에는 시기규정과 시대정신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폐권주의라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본격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김영삼정권이 '민민정부', '개혁 완성' 등을 예고하고 있으나 민중생존권 탄압, 냉전적 대북정책 등 실제로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정세인식이 있었다. 반면 철저한 민주주의가 일정한 수준 실현되고 있고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는 점들을 감안할 때 협박 공간이 늘

'제4기 한총련 6대 목표'는 4·11 총선 때 김영삼 정권의 실정들을 평가하고 민족자주·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총련 중앙상임위는 이를 바탕으로 김영삼 정권 반대 투쟁, 반미·반김 투쟁, 8·15 통일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14개 과제를 상정했다. 대의원들은 학부제 대응, 과학생태 강화의 내용을 보강할 것을 제기하고 '한총련 7대 목표'와 14대 과제를 통과시켰다.

한총련은 3월 27일 총결기를 시작으로 대선자금 공개, 교육제정 확보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대의원들은 미군기지 반환 투쟁, 남북공동 월드컵 정취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1백만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제4기 한총련 총노선은 반미·반김 투쟁을 전면적으로 내세웠고, 대중운동에 있어 광장적 사업들 다양한 고민과 방법들을 제기했다는데 그 핵심을 찾을 수 있다.

(전대기원 서을지역 공기단)

사설

동국발전의 큰뜻 이루어야

잔뜩 물오른 가지마다 새우이 돌아오고 있는 동국의 교정은 싱그럽기 그지없다. 이즈음 부근 기대와 존경한 시대적 사명을 드높이며 총학생회의 해오름식이 지난달 29일 만해광장에 열렸다. 휘날리는 기치와 장엄한 음악과 울동으로 열린 이 한마당은 동국의 기상을 되새길 수 있는 장이었다.

등록금협상이 여의치 않아 어색했던 학교당국에서도 가까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학생처장의 힘찬 응원과 동국발전의 확신을 용변한 총장의 축사는 참가한 학우들의 박수를 받기에 족했다.

그러나 이날의 마무리는 많은 고민을 남기고 말았다. 축사에서 제기된 질의와 총장의 대응이 뼈저리게 되고, 분위기는 급기야 쌍방의 실망과 분노로 역류되었다. 행사를 마친 학생측은 본관으로 진입하여 대학운영의 핵심부서가 되는 각 처사의 집기를 반출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순간 본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막무가내 집기를 끌어내려는 학생들과 이를 만류하는 교직원들간의 마찰은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었다. 이성과 분별이 전혀 상실된 무장투쟁은 난폭과 억지만이 판치는 장면을 보면서 과연 대학의 품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의 학생들의 행동을 아무리 격양된 감정의 표현이었고 '분노'와 '경고'의 수단이었다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모습이 지도와 편달의 태도이기보다는 극도의 적개심마저 드러내듯 싶어 크게 아쉽게 생각한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열린 등록금협상의 자리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상호의 입장을 진지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였다. 그런데 이날 급박하게 경직된 분위기로 선회된 배경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협상자리는 다만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전술적 효과만 서로 노리고 있었다는 말인가. 다같이 학교발전을 위한 총정을 앞세우면서도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진지함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쌍방의 신뢰와 존중이 바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학생측의 공격적이고 강박적인 태도나 학교당국의 애매하고 호도적인 입장을 벗어던지고 보다 솔직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자리를 다시 열고 진지한 고민을 거듭해주시기 바란다. 등록금 협정을 두고 연례행사로 받아지는 공방전이 서로간의 불신과 적대감만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본교는 올해도 개교 90주년의 대역사를 확인하는 벽찬 한해이자 21세기를 전망하는 힘찬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학생과 학교가 더불어 동국발전의 대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동국만평

김성수



WE'VE JAZZ

재즈의 고향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프로젝트 C'를 구상한다

Project C : 사원들의 창의와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동아의 기본 전략
* C란 Creativity, Challenge, Competition의 머리글자

카운트 베이시, 엘라 피츠제럴드.
거창한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그날의 연수 일정이 끝난 저녁이면 Pub에서
마음 맞는 선배 하나,
위스키 더블 한잔,
그리고 윈튼 마살리스의 연주 한 번이면,
세계 건설의 미래는 내 손끝 하나에 달려 있었다.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세상...
내가 창조해 갈 때 세상은 가치를 갖는다.

동아그룹

DONG AH

동아건설 / 대한통운 / 동아생명보험 / 동아증권 / 동아엔지니어링 / 동아관광개발 / 동아종합개발 / 대한통운국제운송 / 대한통운협회 / 동아항공 / 대한운역 / 공영토건 / 동아텔레비전 / 동아주택개발부금 / 학교법인공산학원

4.11 총선 기획시리즈
D-10일을 앞두고 우리의 정치, 사회는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총선이 있기까지의 배경과 의의 그 속에서의 문제점과 선거양상을 진단해보고 대선까지의 전개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글 쓰는 순서
(1) 4.11 총선의 의의
(2) 총선 승패의 최대 관건
(3) 총선 이후 대선의 방향

우 성 기
(법정대 법학과 교수)

1996년 4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15대 총선은 역대의 어느 총선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첫번째는 금년 4월의 총선은 문민정부의 정권중반에 치러진다는 점 및 지난 3년간 김영삼정부의 기복주의적, 권력주의적 정권형태에 대한 비판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점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기 보다는 김영삼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신임표 표적 성격 내지 중간평가로서의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 기획 I - 4.11 총선의 의의

문민정부 중간평가와 개혁 당위성 검증 불가피
공명선거 정착 계기 마련하고 참신한 인물 선출 해야

로 투쟁해 온 군사정권의 정치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지 않느냐는 극한적 비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있는데, 현정권은 이 보다 더한 경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권의 결핍을 들 수 있다. 현정권은 어느 정도의 시비는 있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권력의 정당성 면에서는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만 국정운영에 관해 어느 정도의 비판이 있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국민중심적 및 국민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기에 대한 신경을 써 온 결과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동조를 얻기 보다는 개혁이나 사정을 정권안보 내지 공지에 몰린 현안에 대한 도피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모인사가 말한대로 이번 총선에서는 '박수는 받았지만 표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권이 결핍된 결과 대한민국은 국가인구가 무슨 사적단체인 합회인가하는 비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문민정부의 의미가 군사정권과는 구별되는 정부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대 모든 민주국가정권이 표상하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가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데 있음을 잊고 그 국가권력을 탐리탐락할 위한 사유도구화한 데 있다. 헌법이 인정한 행정조직에 의한 의사결정 보다 비선사조직에 의한 국가의 사결정 및 인사운용 등은 많은 부분에서 국정의 혼란을 초래 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회의 의욕을 꺾어 복지부동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혁이란 당대의 인기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 정권의 구악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도적인 개혁이 되어야 하고 이는 법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이 마련한 개혁법들은 구멍 뚫린 실명제 법률들 몇 개가 있을 정도로 극히 저조하며 행정의 민주화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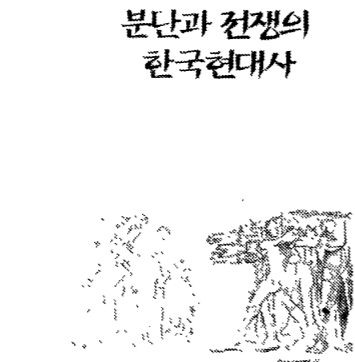
한 개혁 입법들은 미비하며 오히려 낡아져 입법이나 국민의사를 대변하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유능한 처사가 역대 정권 못지 않게 행해짐에 대한 평가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번째 의의는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한 두번째의 실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적용될 통합선거법은 지난해 연말의 개악을 통해 기성 정당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요즘 그 당시 개악입법 통과에 찬성했던 기성정치인들 중에서 정당중간에 탈락하자 개정된 통합선거법조항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자가 있다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걸러내고 정치에 참신성 민주성을 불려야 할 책임이 주권자인 모든 국민 그중에 특히 유권자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물이 '검제와 균형'임을 인정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결려

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맡기고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자가 아닌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사람,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통합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으며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인물을 뽑아야 하는 선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J.A.Schumpeter가 지적한 민주주의 성공에 필요한 조건을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는 민주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의 인적자원이 고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로 정책결정의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잘 훈련된 관료에 의해 정부가 효율적인 명령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정치지도자와 일반시민간에 민주적인 자기억제능력이 있어야 함을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억제능력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엘리트 상호간에 서로의 지배권력을 관용을 가지고 행사하고 반법치주의적이고 사악한 결정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유권자의 경우는 한번 대표자를 뽑았으면 그 대표자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전달해야 지나치게 일기기간중에 간섭을 해서 안된다라는 것이다. 현재 각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지역현안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번 선거의 의미는 과거와는 달리 국정감사자 및 일반국민의 대변자로서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유권자는 지역·현안·현안을 떠나서 공명하고 현명한 표표를 행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평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한국 현대사에 일관된 미국의 부정적 역할 추적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승만 퇴장' 움직임이 몇몇 신문 지면을 채우며 역사의 정도를 시도하고 있고, 광주학생들이 역사의 심판대에서 재판을 늘어놓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족공동체 통일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내부식민지화하려는 흡수통일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일련의 반역사적 행보가 진행되는 요즘, 한국현대사 연구와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강경구 교수가 이에 맞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반역사적 행보의 뿌리와 그 뿌리를 현재의 구조로 연결시킨 연결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통일시대라는 민족사적 전환기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고민과 탐구들의 결과가 바로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이다. 강경구는 지난 4~5년동안 이 문제들에 매달려 온 힘을 다했다고 한다. 그는 이미 발표된 논문들을 다듬어 제1부 '분단의 반역사'와 제2부 '전쟁과 의제'로 나누어 집필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현대사와 미국의 관계'라는 단순구도를 설정하여 미국이 한국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추적이 배려했던 무어와 이과

본질과 아울러 미국의 제국주의 행위를 추적한 논문이고,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간전'은 잊혀지고 있는 추악한 전쟁과 희생된 민족의 짐을 발굴한 논문이며, '해방후 월남인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전파자로 막연하게 인식된 월남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추구한 논문이다. 마지막 논문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대응의 실태'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절정에 달한 한·미·LAEA등의 대북 강경정책 구조를 밝히고 있다. 강경구는 이 책의 전반에 걸쳐 미국이 한국현대사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분단과 전쟁의 현대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치밀한 논리와 방대한 자료 수집 및 발굴로 자신의 결론을 논증하고 있다. 분단과 한국 전쟁, 나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의 분수령마다 미국이 한국현대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한국현대사 개입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자칫 역사적 사건의 설명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지 우려되기도 한다. 미국이라는 외적변수와 더불어 내적변수, 즉 국내적 환경, 주체 역량의 대안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의 강화는 이 책의 객관성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인 역사인식과 비교분석이 돋보이는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는 '역사바로세우기'를 담담결하는 그를 엿보기에 충분한 책이다. 김 용 현 (정치학과 박사과정)



동약로
교실(?) 이데아
"어! 또 바꿨어"
사회과학대 2학년 한 학생이 강의실을 찾아 해매던 끝에 내뱉은 말이다.
학기 4주가 지난 지난 3월28일 전공수업을 듣고자 강의실을 찾아갔으나 아무런 공고도 없이 교수도 학생도 보이지 않아 수업도 듣지 못한 채 낭패를 보았다.
또 수업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책을 싸고 우르르 물러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저기서 "매번 이게 뭐야"라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온다.
대학과 예술영역, 철학과 역사영역을 비롯한 여타 교양선택의 경우 수강생을 1~2백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많게는 4~5백명까지 몰려들어 2개반 이상으로 분반된 강좌수가 상당수에 이른다.
또한 학부또는 계열의 경우 과목선호도나 편입생의 편중에 따라 학생들이 특정과목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업진행에 큰 곤란을 주고 있다. 이번 수부리는 많이 개선되어 강의실이 확

앞서가는 기업. 쌓아가는 기업. 활개가는 기업.
쌍용정보통신 천여명의 전문가들이
앞선 도전의식과 창의력으로
정보통신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발게이츠의 최첨단 소프트웨어에서 서태지의 합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 어느 분야에나 미래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도 놓치지 않는 민감한 정보통신기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쌍용정보통신의 1,000여명의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세계가 육신내는 기술을 먼저 개발한다는 도전의식과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늦을 수 없다는 책임의식으로
정보 선진국 시대 개막과 21세기 정보통신 모델기업
실현을 위해 그들의 온 정열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통신의 모델기업-쌍용정보통신
● 정보통신사업 : 네트워크, VAN, 정보처리, LAN/WAN, 유무선통신기기
● SI 및 SM 사업 : SI컨설팅, SI설계/개발, CS/시스템구축, 산업자동화
● 복합정보사업 : 지리정보시스템, 도판/문서관리 시스템, 멀티미디어, IVHS
● 정보시스템사업 : 중대형컴퓨터, 워크스테이션, PC, 프린터, 그룹웨어, OAS/W
21세기를 이끄는
쌍용정보통신

서울캠퍼스 전구성원들의 복지를 담당하게 될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이 이달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대학생활은 대학을 구성하는 교수·직원·학생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협동과 자조의 이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자치조직이다.

이는 생활협동으로 대학구성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문화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마련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준비 상황

지난해 9월 생활 설립 준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꾸려 현재는 생활설립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 외교학)가 구성되어 생활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달말께로 예상되는 창립총회를 통해 이사회와 이사장을 선출하면서 생활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조합원의 가입방식은 모두 전원가입제(UNION SHOP)로 결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조직체계 및 생활정관의 확정 등만을

◇ 생활에 대해

생활 이달 중 창립예정
구성원 전원 가입키로...시각통일 급선무

남겨두고 있어 설립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가입방식에 있어서는 교수, 직원은 2월 28일에 있는 각자의 총회에서 학생은 지난달 27일에 있는 학생대표회의에서 가입방법을 전원가입제로 결정했다.

이는 '가입과 탈퇴에 있어 자유'라는 생활의 근본적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대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별하기가 어려워, 구성원전원이 조합에 가입하게 되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차후 탈퇴조항에 관한 부분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활주요사안을 결정하는 대의원의 각주체 구성비 및 생활법의 경우 아직

제정되어있지 않아 사단법인(민법 제32조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결해야한 주요한원들이 산적해있는 것은 사실이다.

생활에서 하는 일

생활은 보다 나은 생활을 바라는 사람들이 출자금을 모아 자신들을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조합원을 통해 발생하는 잉여금은 출자금 배당, 복지시설 재투자, 장학수혜사업, 문화행사 개최등의 조합원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생활물품 공동구매를 통한 저가 공급, 환경보호사업

(무공해 비누, 재생공책 판매), 공동체 활동을 통한 조합원간의 신뢰도도, 직영서점의 점관양서 판매, 자취·하숙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앞으로의 과제

대학생활이 출범했다고 해서 곧바로 '복지동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을 바라보는 각주체간의 관점의 통일, 생활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확대, 생활과 학생회 및 학교와의 관계 정립등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우선, 대학생활을 '수익단체'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생활은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태어난 조직이지 이

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까닭이다. 물론 재단의 기본시설에 대한 이용부분은 무시할 수 없지만 학교당국이나 재단에선 생활을 하나의 복지차원으로 인정 해야하며,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발생이익은 학내복지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학내구성원들의 생활에 대한 인식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조합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생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현재 재학생들은 생활에 대해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학부와의 관계 및 학교 행정부서와의 관계정립이다. 이는 운영전반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라는 뜻과도 연결된다. 학부위는 학생단위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행정부서직원은 행정적 입장이 아닌 조합원이라는 주인의 입장으로 생활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출발은 눈앞에 둔 생활에 거는 기대 못지않게 각주체간의 관점의 통일,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라는 인식의 확대는 중요하다. (이영규 기자)

뜻깊은 만평

뇌물 공화국



정 남 기

전직 대통령들이 기업으로 부터 뇌물을 받아 착복했다 하여 구속 수감되었다.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일은 아니지만 세상이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우선 현정권의 성격과 장래에 상당한 신뢰와 기대를 보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손발노릇을 해온 권부의 실체가 청와대 임성이전부터 백악기라는 이름으로 뇌물을 쟁겨 비리를 일삼았다는 군사정권의 형태와 무엇이 다른가. 권력주변의 축재와 비리는 형식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고 검찰수사도 어둡게 넘어가기 일쑤라 진실은 커녕 가닥을 잡기가 어렵다. 흔히들 장학로부속실장 혼자만 날뛰었었다는 의문에서부터 청와대가 이지경에 이르렀다면 다른 정부의 부처나 기업·사회단체는 온전히 굴러갈 수 있었겠느냐는 등등의 시비로 나라 전체가 구정물을 흠뻑 뒤집어 쓴 꼴이다.

우리의 역사가 영광보다는 오욕이 더 많았던 까닭이겠거니와 오늘까지 뇌물 주고 받기가 지능화는 이루어졌을 망정 사라졌다고 보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공직자는 물론 상당수 지식인들도 뇌물을 주어서 특이되고 받아서 즐거운 것 쯤으로 치부해버린다. 그들은 그럴싸하게 관계를 만들어서 찌꺼기같은 죄의식을 희석시키고 모두가 공범이라는 논리로 뇌물공조를 정당화하려 든다.

문화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일찌기 우리의 같은 흉역을 치우며 온갖 부조리에 대한 뿌리를 잘라냈고 긴 세월 거듭 확인작업을 거쳤지만 그래도 미흡한 구석을 찾아내고 있다. 미국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그 나라에 있어서는 자랑거리쯤의 하나다. 독일의 부정부패방지법 역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하고 있다. 뇌물사건과 연루되었던 기업은 어김없이 공공사업발주에서 제외된다.

총선정국을 맞아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동참하도록 서약을 받고 있고 후보들도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앞으로는 부정한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중형을 선고받고 발발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은 갖지 않는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광범한 감시망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후자의 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납세자들 스스로가 새삼스럽게 깨어나야하고 성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반뇌물공약으로 무장해야 한다.

연합통신 편집부작가 대우

◇ 생활 설립 발기인회 사무국장을 만나

대학 구성원을 하나로



지난달 29일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출발을 앞두고 바쁘게 생활중인 생활설립발기인회의 사무국장 이근배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활의 출범이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는?

=여러가지문제가 혼재되어 있고, 학생참여 방법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식당의 OPEN이 늦춰진것, 법인 설립의 미해결 때문이다.

-새로운 법인의 설립은 학교측과의 독립성과도 연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하나의 독립적인 단체로서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어진다. 이와함께 법인설립후 운영을 전문적인 경영인이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추구를 극대화 하도록 하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다.

-생활 운영에 있어서 학교측의 지원은 없는지?

=물론 학교측은 학생의 새로운 복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생활은 시설물에 필요한 제반 기자재등에 재투자를 한다.

-생활 출범후 달라지는 생활이 있다

면?

=우선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동구매를 통해 제품의 가격을 저가로 살수 있는 점들이 있겠다. 흔히 호출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단체로 생활에서 대량구입하면 조합원들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게된다.

또, 지방학생들을 위한 하숙집안선, 귀성예매표 판매와 대학생들이 빈 시간에 학교내에서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영화상영과 휴식공간 마련도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아져야 하는데 임대매장을 직영으로 할 생각은 없는가?

=물론 가능하다면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임대매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외부유출이 생활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만큼 학교내의 복지사업진행도 원활히되고 이용도 편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데 조합원들의 의견개진과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견개진은 일년에 한두차례 열리는 조합원대회 개최를 통해 이루어지며 감사는 각 주체(교수, 직원, 학생, 대학원생)에서 1명씩으로 구성된 감사위원이 맡아서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출범에 앞서 하고픈 말은?

=짧은 시간동안 준비를 하여서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큰 인식을 주지못했는데 올래는 이를 극복하는것을 과제로 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은 학교의 3주체가 참여하여 대학 생활·문화·학문 공동체를 이룩하는 최초의 운동, 모인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태훈 기자)

생/활/협/동/조/합

◇ 대학을 알아 본다

생활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인식 요구

조선대, 자치조직으로의 위상 굳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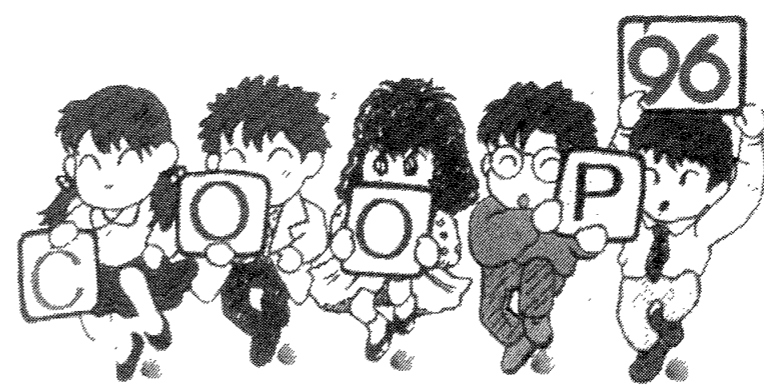
본고는 내달에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을 창립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현재 국민대, 한신대, 세종대, 강원대, 경북대 등이 생활정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원대, 한신대, 이화여대, 조선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는 생활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중 조선대와 외대용인 캠퍼스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대의 경우 지난 90년 12월21일 국내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이 설립됐으며, 창립초기부터 사단법인으로 완전히 독립된 재단법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며, 자치조직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하고 있다. 조합원은 현재 9천여명이며, 조합구성은 대의원회, 이사회, 운영자문위원회로 이루어졌다.

생활이 운영되기 전에는 학부위와 학교에서 학내수익사업을 분담했으나 생활설립 후 생활이 총괄하게 됐다. 이후 생활은 학교측에 시설비 및 교육비를 기부하고, 각 단과대학 휴게실 탁자 및 의자구입, 분리수거통 설치 등 후생복지 시설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또한 생활은 초기부터 열가판대, 조합원 할인특대 등의 학내에 국한된 사업뿐만 아니라 재학생을 사업단과의 연대활동과 '같은 환경사업을 함께 해왔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농산물판매, 특별강좌 마련, 영화관람권이나 정유회사 상품권 등을 할인



◇ coop은 협동조합을 뜻하는 영 단어이다

판매하는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와같은 여러사업들 통해 5년이상 경영으로 학내사업운영에 대한 학생과 직원간의 불신을 깨뜨리면서 생활경제는 당연히 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대 생활관계자는 "생활이 많이 안정화, 활성화 되긴 했지만 정확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조합원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남는다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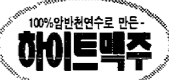
한편, 외대 용인캠퍼스의 경우는 지난 94년 9월에 생활이 창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원래 이곳은 대학촌 형상이 미비하고 학내복지마저 낙후되어 있어서 조합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90년에 학생조합이 결성되었으나 운영상 학교측과의 마찰로 인해 3주체가 공동참여하는 생활로의 변신을 이끌어 내었고, 현재까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외대는 생활을 통해 식당·매점사업뿐만 아니라 학내복지 발전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관심과 수익금 투자를 통해, 학교의 기본 시설투자와 조합 운영으로 조만간 학생 복지관을 완성할 예정이다.

위와같이 조선대, 외대를 포함한 현재 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내부적 체계확립이나 관리기법을 세련화 하기보다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생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고지은 기자)

전국 7,300여 학과에서 뽑힌 새내기 과대표 —
대표맥주 하이트가 아낌없이 축하드립니다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찍은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학교출신이라고 해서 찍은 경우도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면, 우리를 위해 성심 성의껏 열매 줄 것같이 깨끗하게 뽑았습니다.

100% 양면천연수로 만든 대표맥주 하이트가 깨끗한 한포 한포로 당선된 새로운 과대표 여러분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참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 기획시리즈(1) - '저항문학이란'

소외된 계층의 주체인식에 바탕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 -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의 저항

'저항문학'에 대한 논의는 '저항'이 갖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와 역사적, 문화사적인 환경, 배경의 규정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명확성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저항문학은 저항의 '대상'과 저항하는 '주체'가 명확할 때만이 그 성격과 개념의 모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저항문학'의 개념을 '항일 저항기 민족문학'이라는 범주에 국한시켜서 사용해 온 것이 이제까지의 일반적 관례이다. 따라서 한국근대문학사의 '저항문학' 전통은 이 시기의 문화적 성격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근대문학사 이전에 의제의 침입에 대한 저항문학, 혹은 민족의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 혹은 반발의 성격을 지닌 문학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우선 그 개념의 명확성을 얻기 위해서 '근대문학사'에 한정된 범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문제의 핵심은 '저항적 주체의 성립'과 그 '저항 대상의 변화'에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확장된

사고에 의해서, 문학사에서 사용하는 제한된 저항문학의 개념은 한국문학사의 특징적이며 동시에 보편적인 영역으로 새롭게 자리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일제에 대한 저항문학의 전통은 70년대 민족문학, 80년대 민족문학의 전통으로 이어졌고 이 점에서 그 문화적 외곽의 변모는 바로 주체와 대상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저항의 '주체'와 '대상'이 명확해야 저항 문학의 개념 성립

그렇다면 이제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보자. 주체의 개념에는 서구근대사회가 산출한 아이덴티티의 의미가 상당히 짙어 있다. 근대사회에서 개인적 주체는 그 사회적 아이덴티티의 확인이라는 문제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곧 서구 시민사회의 논리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주체의 끊임없는 자기 확인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점은

개인, 존재의미를 보장하는 것은 일정한 사회적 보편가치와 집단주의에의 소속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보편가치의 '다양성'이 초기 시민 사회에서는 협시리 보장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19세기 이후의 근대시민사회는 자본주의라는 커다란 사회적 가치체계를 그것들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의 확실성을 고착시켰다. 사회적 자기정체성의 확인 혹은 주체인식의 면에서 근대시민사회는 어느덧 그 사회적 가치체제로부터 소외된 새로운 계층을 낳았고 이러한 계층 분열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이데올로기로서의 새로운 주체들을 탄생시킨 것이다.

두 가지 저항적 주체(identity)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지배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계급의 '자기 정체성(identity)'에 대한 대타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저항적 주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한 국가중심사회내의 계급적 분열이 파생시킨 '저항적 주체'에 제국주의와 제3세계 민족주의의 대립이 낳은 또 하나의 저항적 주체를 가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항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한 '주체인식'이다. 이 두 '저항적 주체'는 실제로 한국근대문학사에 거론되는 '저항문학'의 실질적인 주체이다.

근대 문학의 저항 대상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저항적 주체의 인식 이면에 담겨 있는 근대체제와 그에 대한 태도이다. 즉 제국주의와 부르주아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의 측면에서 한국근대문학사는 "무엇을 문제해결의 열쇠로 인식해야 하는가"라는

96문학의 해를 맞아 본 기획에서는 근대문학사에 한정, 소위 '저항문학'이라 일컫어 지는 것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편집자)

달 하나 천 강에

개나리에게 얻은 삶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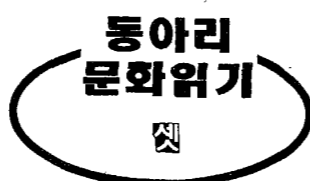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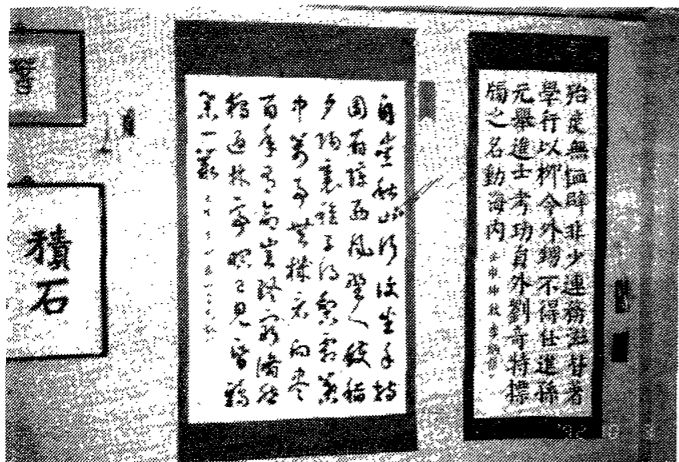
김준식 (대학원 박사과정-문학평론가)

물오른 개나리 줄기를 본다. 연 보라 빛을 띄고 있는 줄기, 새순을 내보내려 한 계급문학의 대립 논쟁 이면에는 그들이 저항의 대상에 대한 대타인식의 차이와 저항적 주체의 '자기귀속중립(identity)'이 상호 중립되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다. 이 두 문화적 전통은 한국근대문학사의 '저항문학'을 형성한 두 뿌리이며 그들의 인식적 공통점은 바로 근대시민사회를 형성한 '근대적 주체'를 대타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제3세계 민족의 문제가 서구식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논리와는 애초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저항적 민족주의 논리만이 '저항적 주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점은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같은 체제보존의 논리가 저항문학의 전통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찰나와 편의주의에 편승하여 고뇌와 인내를 거부하지 않았는가? 틀린 눈금의 잣대로 사물을 재지 않았는가? 넉넉지 못한 마음과 늑순 영혼으로 시간을 축적하지 않았는가? 영혼을 함몰시켜 세운을 임대할 삶을 갈망한다. 틀린 눈금을 바로잡을 반성과 사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넉넉한 마음으로, 녹슬지 않은 영혼으로, 새생명의 대열에 참가하고 싶다. 찰나와 편의주의 아닌 인간을 위한 참세상의 일원이기를 갈망한다. 자연의 섭리처럼 제때에 제물을 다하는 사람이고 싶다. 인간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의 삶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문학이 반성과 사고를 요구하는 현실을 포착한 예술이라면, 작품속에서 반성과 사고를 해봄이 어떨까? 스위프트의 걸리버여행기에서 인간을 축소, 확대 시켰을때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발견하고, 광림의 파리대왕에서 인간에 내재해있는 악을 보며,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동물보다 못한 인간을 만날 수 있다. 찰나의 찰나일간의 세계일주에서 과학이 발달하여도 인간의 사랑없는 과학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발견한다. 호머의 오딧세이를 통해 인간 삶의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소포클레스의 비극 외디프스왕에서 인간의 가치는 진정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오만과 편견을 버려야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스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수도 있다. 신사들의 속물주의를 비웃는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주체를 상실한 귀여운 여인도 만나 볼 수 있다. 험릿 왕자를 만나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지적 노력에 동참해 볼 수 있다.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 대한 이상과 무질서한 현실과의 괴리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 미국 소설의 고전 학살배리 편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또 있다... 또... 작품속에서 너무 많은 이들이 우리가 만나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건조한 추상적 형식주의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본능과 예로티시즘을 부활시킨 포스트 모더니즘을 접하면 우리의 잣대는 다시 점검해야 한다. 권력과 지식을 연결시켜 역사를 새롭게 대한 쿠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뒤집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라는 라경, 사회적인 성차별의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의 틀이 되고 있는 페미니즘, 이들을 섭렵하노라면 우리의 눈금들을 다시 그려져야 한다. 이러한 이들은 우리들에게 움직이는 증거로 끝없는 반성과 사고의 지평을 넓혀준다.

영상문화가 아무리 큰 파괴력으로 대중에게 파고 든다 할지라도 활자매체를 통해 상상력을 촉진시키는 문학과 그 이론들은 '숨어있는 신'으로 그 권위를 지킬 것이다. 이들을 만남으로 우리는 우리의 세운을 띄우는 작업에 동참 할 수 있고, 제때에 제 빛을 한껏 발하며 사는 지혜, 성숙한 여름과 풍요의 가을로 이끄는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 때, 이불 한편의 책을 읽어주고 책장을 펴볼까? 개나리가 활짝 필라고 한다. 햇살이 따사롭다.

정내원
인문과학대 영어영문과 교수



경주캠프 교양분과



급변하는 사회에서 여유와 창의력 가꾸는 동아리

교양분과 문화원기에 앞서, 새내기들의 새로운 동아리문화 형성을 위한 경주캠프 동아리연합회 주최로 열린 '시벌한마당'에 대해 잠깐 평가를 내리고 넘어가기로 하였다. 본래 '시벌한마당'의 기획의도는 신입생모집을 가두모집의 차원을 넘어서 전통아리에서 공연 및 각기 동아리의 특색을 내세워 공개적 홍보를 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예분과를 제외하고 특별한 홍보물이 없었던 동아리는

이에대한 인식과 고민부족으로 가두모집만을 하는 것으로 그쳤다. 따라서 문예분과 공연의 노래소리, 풍물소리로 가득차며 한편 꽃샘추위 탓인지 정작 주인공인 신입생들의 참여 또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벌한마당'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동아리에 대해 시벌한마당에서는 전통아리참여, 특히 새내기 관심유도에 충분한 고민이 요구된다.

그럼, '시벌한마당'에 참가하는 대신, 가두모집을 했던 교양분과 동아리들을 찾아가 보자. 제3의 물결, 정보화 시대로 현대는 X세대, 미시족, 야라족등 시시각각 사람들의 모습도 변화한다. 변화한 사회는 사람들에게 반성과 인격수양에 인식하게 만든다. 그런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인격수양을 하는 교양분과, 간편한 시대, 인내를 멀리하는 경향을 보이는 시대에 옛 선인의 정

서를 붓글씨를 써가며 배우고, 한잔의 차를 여유롭게 마시는 서라벌다우회들은 전시회 및 무료 차시음회를 통해 학내활동을 한다. 누구나 창작의욕을 가지고 그것을 표출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런 동국문화회는 토론과 창작교실등을 통해 기쁜 기쁨을 정기발표회를 통해 발표하고, 영상은 한 컷의 필름속에 자신의 느낌을 다 담으려고 몇번이고 찍어 현상, 인화해 내 때, 그 뿌듯함을 자아낸

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촛불의식, 순례악수, 모닥불 의식을 배우는 유스호스텔등이 교양분과의 문화를 이어나간다. 한편 교양분과의 활성화는 꼭져 여건 일상속에서 잠시의 여유로움과 창작활동으로 경직된 대학문화에 한층 탄력을 더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성동 기자)

우리의 마당발을 위하여-

내가 마당발이 된 이유

- 하루를 25시간으로 써도 부족한 대학생활-
- 해야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다.
- 강의는 물론, 세미나, 스터디, 동문회, 동아리,
- 미팅, 배낭여행.....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다.
- 36.5°의 따스한 고감이 가슴을 가득 채워주기 때문이다.
- 이렇게 사람들이 좋고, 사랑이 좋아서 나는 마당발이 되었다.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어디서나 환영받는 우리의 마당발-
- 인공위성에서 인터넷까지,
- 세계와 호흡하고 지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 신세대 마당발을 위하여
- 랜드로바가 함께 합니다.

랜드로바

학칙 대대적 변경

조기졸업확대, 유급조항폐지등

본교의 학칙이 지난 29일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아 변경됐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기졸업제도 확대(7학기에서 6학기 또는 7학기)로 △평생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재학 년한과 재입학 기회 제한 철폐 △휴학생의 여성만큼 편입학 확대 △신입생 선발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출신자의 특별전형 실시 △학부(과)간 장벽을 철폐하여 학생들의 전공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부(과)제도를 확대(10%에서 20%로, 전제도로 확대) △학부별, 계열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 또는 학과는 2학년 2학기말에 결정 △학내 연구의 질적 우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졸업학점을 최저 120학점으로 하향조정(불교대학, 경상대학, 불교문화대학(국악과는 제외), 상경대

학) △부전공제 폐지 △다중전공 복합학문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수전공제도를 확대 △중적·월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학생들이 자유로이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대학원 학점을 학부재학점 선취득(9학점)하거나 타대학에서 수학 가능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의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 △학점증명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매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자에 대한 성적 경고 조항과 취득학점부족(21학점)에 의한 유급 조항을 삭제 △수강과목의 취소 및 재수강제도 도입 △성적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신력과 수업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성적평가시 상대평가제 도입 △학과장제를 폐지하고 전공주임교수제를 도입 △전부(과), 복수전공, 타대학에서의 수학, 조기

졸업, 평생교육시스템 등의 모든 제도가 조기 정착하고, 학문 및 학부(과)간의 높은 장벽을 제거하고자 전공 필수제도 폐지.

새내기 농구잔치 체교과 우승

지난 28일 96새내기농구잔치결승에서 체육교육학과가 북한학과를 1백66대 38로 대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스텝으로 구성된 선리회팀과 본교 기숙사 기원학사팀등 41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9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진 이번 농구잔치는 과단결, 새내기 친목도모에 일조했다는 여론과 함께 과열된 응원양상으로 파이거주의를 고조시킨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재단, 산하기관 감사

회계·행정 부분

법인사무처(처장=송재운·국민윤리)는 산하기관 감사를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올해감사는 95년 3월1일부터 96년2월28일까지의 회계와 행정감사를 실시하며, 대상은 법인산하 학교로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부속 중·고등학교, 명성여자 중·고등학교, 금산상업고등학교, 금산중학교, 흥재중학교, 은석초등학교 등이다.

한편, 감사는 법인에서 선임된 감사원(3명)이 맡는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쫓겨 높은 층대를 뛰어 다녔으나, 이 공사로인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이동시간을 크게 줄여 수업차질에 대한 불만이 크게 줄어줄 전망이다.

자매대학 교환교수 파견

증문과 어학능력 함양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북경대와 남경대에서 교환교수 2명이 파견됐다.

이번 교환교수는 지난달 1일자로 증문과와 외국어능력 함양을 위해 초빙행식으로 본교에서 근무하게 됐다.

캠퍼스별로 살펴보면, 서울에는 북경대 분세취(중문계 주임교수)교수, 남경에는 남경대 양석평(중문계 부교수)교수가 파견되었으며, 이들은 1년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학술관-동국관

연결계단 공사

학술문화관과 동국관을 잇는 계단 축조공사가 지난 3월18일부터 공사가 있어 9백50만원을 들여 시작해 오는 5·6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학술문화관을 이용하는

'아리수' 공사 지연 재학생들 큰 불편 겪어

지난 2월2일 공관위, 학생, 학교측이 합의한 원용가든 '아리수'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재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원용가든은 위치와 위생시설에 문제가 있어 가난해 중구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아 공사 독서실과 위치를 바꿔 새롭게 '아리수'를 이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개강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도 학교측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다.

관재과의 이창진 계장은 이에 대해 "공사에 드는 비용은 약 5천7백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고 아직 입찰도 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늦어도 4월말까지 공사를 끝

내겠다"고 덧붙였다.

사실 우리학교의 식당 매점수는 다른학교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올해들어 점심시간마다 심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다량관과 보리수 매점의 상태는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편감마저 주고있는 실정이다.

다량관 식당만해도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서동욱·무역4)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하루에 4천여명 정도가 이용했으나 올해는 4천5백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절대공관 부족의 문제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학교측은 원용가든의 시급한 공사의 개장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중외일보 본교에 자료기증 한국침략 사죄의 뜻으로

일본의 일간지인 중외일보(사장=혼마 쇼노 스케)가 중외일보 창간(1896년 10월)이후 불교관련 및 한·일 양국관계 기사와 사진이 저장된 마이크로필름을 지난 28일 본교에 기증했다.

또한 중외일보는 마이크로 필름을 볼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2백만원에 함께 전달했다.

중외일보는 "일본의 한국침략 사죄의 기회로 이 자료를 기증하는 것이며, 일본의 근·현대사와 아시아의 국제관계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는 "이 자료를 도서관에 보관하여 학생들 교육에 유익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과대 학생회장 선출
원진욱·윤성진조

제28대 문과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단독후보한 원진욱(사4)·윤성진(국민3)조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1천82명중 6백17명이 투표에 참여해 57%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중 찬성 5백66표를 얻어 91.7%의 지지율을 보였다.

진제 대선사 법회

고승초법법회가 진제 대선사의 '참선의 길'을 주제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에서 오는 9일 개최된다.

진제 대선사는 한국 불교의 큰 별 겸 진제 대선사의 정통 법맥을 잇고 있는 선문의 대표적 큰 스님이며 지난 67년 조계선문의 거장 향곡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현재 동화사, 해운정사, 금포선원 조실로 계시는 진제스님의 대표적 저서로는 오랜기간 베스트 셀러로 기록되었던 '선백문백답'이 있다.

안중철 정각원 법사는 "큰스님의 서술진법법회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돈오돈수 돈오점수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복위 특강 실시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서동욱·무역4)는 오늘 1일부터 5월31일까지 특강을 실시한다.

오는 6월까지 구내서점에서 점수를 받으며 오늘부터 4일까지 열린 강의를 실시한다. 또 점수로부터 일주일내에는 환불도 가능하며 특강 수강자에게는 무료로 모의 TOEIC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과대 건대위 구성

'사회과학대 건설 대책 위원회'(공동위원장=함인수·정의3 김연희·정의3 박삼현·정의3 이원재·사회3)가 96년 한 해동안 사회과학대 학생회를 꾸려가게 됐다.

그동안 후보자 부재로 선거를 치르지 못했던 사회과학대는 대안 체계로 '각학과 학생회장 연석회의'를 마련, 지난 28일 총학생회의 인준을 받았다.

한편 역시 공석으로 있었던 대외연락처로 '삼의 공동체, 다시 서는 6백40'이라는 구호를 내건 이창무(정의3)를 선출했다.

불교학보 발행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종·불교학)은 불교학보 제32호를 지난주에 출간, 배포하고 있다.

불교문화연구원의 연재사업중 하나인 불교학보는 현재 본교 불교대에 재직중인 교수들이 작성한 논문 위주로 구성되며, 발행부수는 1천부로 불교대, 인문계열 부분, 학술기관, 외국불교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불교문화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불교학보는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역사성이 있을 뿐 아니라 훌륭한 논문이 많아 신뢰도도 높고 학술협회의에서도 적지않은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학전무대

속된 강정

○...잠시만요!
지난 27일 있었던 학생대표 자회의가 70여명의 학생대표의 참여로 성사돼 지켜보는 이를 잠시 흐트러지게 했는데, 그러나... 속을 들여다볼까요?

날씨는 춥지만 시작은 50분이나 늦춰지고, 처음 인원 70여명이 중반이 넘어서거나 40명이 될까말까? 학대회 성사도 안되는 인원이고 하니.

게다가 학자투쟁과 학복위장은 안전표본만 하고 모습은 보이지 않네.

지켜보는 이 당황해하며 "신관 총동맹전이 아닐까?"하며 가우뚱.

은뎀으로 느껴져요

○...바람바람 바람바람
밥 끓는 소리나구요? 아니요 밥 끓는 소리는 보글보글이요. 바로 바람 끓는 소리예요.

동학인의 학구열로 타겟같은 도서관, 점심시간에는 밥 불일 곳도 없는 식당. 쉬는 시간의 복도나 계단은 그야말로 긴급피난을 연상시키죠.

어휴~ 이에 지친 새내기 한 마디.
"은뎀으로 느끼는 일만 동아인"

우편물은 어디에

○...학부제 실시 이후 여러과가 통합된 학부신입생들의 우편물이 갖곳이 없는 상황.

입학식이 시작될지 한달이 지나도록 학복위 마련은 잠잠 무소문인데.

자신의 우편물이 오지 못 오지지 않 방도가 없는 신입생은 그동안의 피해를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어허라 갖곳없는 우편물의 한풀이 위해 진혼가나 불러보세
민지못할 맘머리

○...누가 믿겠습니까.
- 조신일보 3월23일자 1면 광고에서 -

각 당마다 일간지에 정당선전 광고를 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모담에서는 처음엔 인기모델을 출연시키더니 이젠 양치기 소년까지 섭외를 하더군요. 그렇지만 맘머리는 그렇게 특정후보의 비방따윈 하지 않을테요.

잠시 몇개 깨뜨린 맘머리는 쫓겨나지 않을 테지만 지금 그대 머머리가 잠지만 깨뜨렸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 아버지의 눈물... 지난 29일 시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연세대생 노수석(법학2)군의 아버지가 국립의료원에 안치된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NOTEBOOK PC 구입 신청 안내

본교는 삼성전자(주)의 후원으로 대학생 여러분의 학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의 정신으로 특별 할인 구매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재학생, 대학원생, 교수, 교직원에게 한하여 노트북 PC(1인 1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구입신청
① 신청방법
○ 동국대학교 재학생 및 재직 교직원에게 한하여 1인 1대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구입하려는 모델(A, B형, 프린터)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재확인하고, 신청한 후에는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A형	B형	인크젯 프린터
1,640,000원	1,940,000원	217,800원

◇ 구입대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학부생, 대학원생 전산원생	노트북PC 구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조흥은행 전국지점에 납부	3월25일~4월4일(9일간)
교·직원, 의료원 직원	조흥은행 계좌번호: 313-03-003885에 부통장 온라인 입금함. (예금주는 "전자계산소", 입금의뢰인에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함)	

◇ 할부구매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중 전시장에서 "삼성할부금융"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할부신청기간: 96. 3. 25~96. 4. 4(서울캠퍼스)

① 신청서 배부처: 교학부(과), 전시장, 조흥은행 동국대출장소
② 신청기간: 96.3.25~4.4(9일간)
③ 신청장소(구입대금 납부장소)
④ 조흥은행 전국지점, 동국대출장소

2) 제품 전시
① 전시내용: Notebook PC 및 Notebook PC Option 소개
② 전시기간: 96.3.25~4.4(9일간)
③ 전시장소: 도서관 1층 로비(서울캠퍼스)
④ 전시시간: 10:00~18:00

3) 제품 인도
① 인도방법
○ 노트북 PC납입 영수증과 신분 증명서(학생증 교·직원 신분증)를 지참하여 제품을 수령하면 됩니다.
○ 제품 인도기간: 96.4월 하순
○ 제품 인도장소: 후쿠 안내 예정인

4) 기타안내
① 동국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에게 한하여 1인1대만 판매하며,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청기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② 노트북 PC 구입신청서를 분실하였거나, 미수령자는 조흥은행 동국대 출장소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수령시 재확인 하여 주십시오.
③ 구입에 관한 안내 전화: 서울캠퍼스 전자계산소 ☎ 02-260-3490
경주캠퍼스 전자계산소 ☎ 0661-770-2484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소

좌선법회 안내

동국좌선회에서는 교직원의 참선수행을 위한 법회를 실시하오니 동국가족여러분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학기중 매주 수요일(07:30~8:30)
2. 장소: 정각원 법당
3. 지도법사: 정각원장
4. 문의사항: 정각원 사무실 (안중철법사 TEL:3688)

정 각 원 장

공 고

1996학년도 제1학기부터 학사내규 제14조(수강과목의 취소)에 의거 수강과목 취소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96.4.2(화)~4.4(목) 3일간
2. 신청서교부 및 접수: 각 대학 교학과
3. 적용대상: '96학년도 제1학기 1학년 개설교과목 수강자로서 '96학년도 신입생 및 1학년 1학기 복학자.
4. 취소과목표기: W표기(성적표) ※ 수강과목을 취소한 자는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음.

1996.3.28
교무처장

취업대비 인·적성검사 실시

본 연구소에서는 현재 국내외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시 활용하고 있는 최신의 검사지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취업대비 인·적성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 검사종류: 취업대비 인·적성 검사
2. 검사지: 국내에서 시행되는 최고 수준의 검사지
3. 접수일자: 4월 8일(월)~4월 29일(월)
4. 검사일자: 5월 첫째주 예정
5. 비 용: 검사비(학생 부담): 1,000원
검사해설 및 상담: 무료

* 검사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점수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연구소(교수회관 3-1호, 전화 35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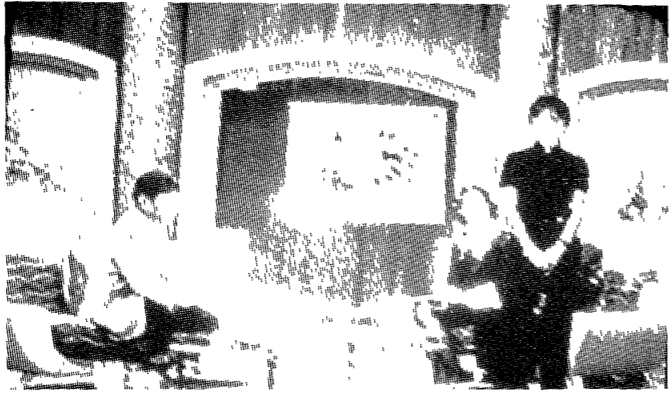
1996.4.1
학생생활연구소장

영상매체비평

- TV편

TV속에 공존하는 스타의 이중적 이미지

심야 TV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밤과 음악사이'는 대중들의 관심과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내노라 하는 스타들을 초청해서 담소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심야방송답지 않게 제법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TV가 일반대중들의 휴식거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이래로 TV스타들은 항상 대중의 우상이었다. 그들은 지루하고 피곤하게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 바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다. 대중들은 화려하게 TV에 재현된 스타의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잠시나마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꾼다. 그러나 대중들의 욕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TV를 보고 즐기는 사람들은 드라마, 쇼프로그램, CF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들을 정규적인 프로그램 바깥으로 불러내서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물어 보고 싶어한다. '밤과 음악사이' 그리고 이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TV토크 쇼들은 대중

자신의 사생활, 성장과정, 가치관을 밝히는 순간(물론 거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윤색과 각색이 뒤따르겠지만) 기묘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월28일 방영된 '밤과 음악사이'에는 '이본'이 초대되었다. '이본'은 CF모델로 출발해서 드라마 연기자, 쇼·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자 등의 역할을 고루 맡아왔다. '이본'이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TV시청자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본'의 강점은 MTV세대가 원하는 스타의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시켰다는 것이다. 그녀는 쇼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면서 끊임없이 몸을 흔들고, 이런 행위는 그녀가 젊은 세대를 괴롭히는 관습과 고정관념에 대항하고 거칠게 도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밤과 음악사이'에 초대된 '이본'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 '이본'이라는 '여성'스타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부모로부터의 허락을 받고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의 재정적관리를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자랑

스럽게' 시청자들 앞에 밝힌다. TV에 재현된 이미지 속에서는 강하고 자유분방하고 해방된 여성의 느낌을 주는 그녀가 '엄마, 아빠'운운하며 마치 10대 소녀처럼 울부짖는 것은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또 '이본'은 이상적인 남성상과 결혼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상적인 남성상은 옆에서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며, 결혼 후 남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연예인 생활을 그만 둘 수도 있다고.

가끔씩 TV스타들은 현실의 관습과 도덕률을 과감하게 깨는 존재들로 비쳐온다. '이본'이 시청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그것은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파격적인 언행과 자유분방한 현대적인 여성 이미지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스타가 되고, 그런 까닭에 한밤에 시청자들의 곁으로 찾아온 그녀가 자신의 TV이미지를 완강하게 부인한다. 그리고 서둘러 일상의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이미지를 복구하고, 정갈한 TV는 얼마나 정교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인가!

최미애 (시나리오 작가)

강요배 작품을 통해본 제주민중항쟁

'혹독한 바람은 수백년을 두고 외세집들로 불어왔다. 참으로 두꺼운 바람은 내가 태어나기 4년전 오랜 식민지 백성이 해방의 깃발을 휘날리던 날, 저 태평양을 건너와 이 작은 섬을 삼키고나서 이 피의 바람이 바로 4·3이다. 그리고 그 피의 바람에 맞서 그것을 갈라선 저항인 4·3이다.' 이는 민중화가 강요배씨의 4·3항쟁에 대한 것이다. 4·3항쟁을 작품세계로 하는 그의 작품을 통해 48년전 4월3일 그날을 되새겨 본다.



진정한 해방이 아닌 해방 미군정이 지휘하는 조국의 원천한 해방을 열원하며 저항했으나, 계속되는 탄압에 제주민들은 '탄압이면 항쟁이다'며 마침내 반격을 시작- 4·3항쟁

항쟁속에서 5·10 선거거부투쟁을 실시. 그러나 민중대학살 대토벌을 자행.



1949년 5월10일 복제주군 감을구 제선 심사로 항쟁과 그것에 따른 피의 보복·대살육이 일다. 그 1년 후 8월20일 첫날오름의 대학살이... 그림은 '통풍으로 멀어지는 한라산 동백' (문화부)

OK? OK!

"오늘밤 너와 나 단둘이서 탈의(脫衣) 탈의(脫衣) 행복을 예약하는 행복한 PARTY 사랑을 느끼면서 탈의(脫衣) 아찔이 올때까지"

"엄마, 이 한자가 무슨 뜻이야?" 아직 한자를 못읽는 초등학생 여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들고온 가시집을 읽고는 거의 깨우랄까 생각한다. PC통신에서 신문지상에서 한바탕 논쟁이 벌어진다. 하지만 다 소용없다. '미녀와 야수'는 벌써 150년간이 팔려왔다고 한다. 5천년을 이어온 동방예지국의 도덕률은 이제 겨우 스무살 문턱을 넘어선 세 소년으로 구성된 DJ DOC의 '미녀와 야수(Ok? Ok!)'에 의해 한 방에 KO당하고 말았다. 우체 이런 일이! 어른들은 격정이 태산같다. 이 노래를 듣고 초등학생, 중학생 '얼라'들이 참말로 웃을 벗어던지면 우쭐하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큰일이 난 것일까?

본진성의 '희망사항'부터라고 생각된다. OISB, 푸른하늘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서태지 이후 팝이 가요의 주류에 편입되면서 그 현상은 완전히 정착된다. '일상으로 이루어진 노랫말'이라는 현상이나, 아주 거칠게 요약하자면 '희망사항'이 전 한국 대중가요의 노랫말은 '구태의연한 사랑타령'과 '유유시인의 시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정치적 경계성과 도덕성 보수성이라는 사회환경 때문이라는 원인분석은 상식이나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구태의연한 사랑타령이든 유유시인의노래든 대중의 '삶'을 그리기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이다.

문화시평

밥먹고 커피 마시고 연예하다가 싸움질하고 팔보기 싫은 사람들 욕하고 술먹고 토하고 '남녀 만나 보도 같이 자고'... 꼭 그런 등등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에 대한 그리움이나 '가끔씩은 서로의 눈 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는 아주 오래된 연인'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현실적인'가. 같이 틀대고 들어버린 기성세대는 당연히 '뭐 그런 가사가 다 있어'라고 비웃었지만, 김치질 않으려 발버둥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아직 가능한 청년세대는 환호했다.

각종의 음악적 문법규칙에서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는 랩이 등장하면서 가사는 더 이상 정형시의 틀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서태지 이후 쏟아져나온 래퍼들의 노래는 그 이전까지 시조 또는 시의 틀 안에 머무르던 가사를 일삼 구어(口語)로 해방시켰다. 노랫말의 해방구! 그것은 랩의 해방구적 성격은 우리의 관습과 맥이 닿아 있기도 하다. '질러한' 일상언어가 시어(詩語) 또는 문어(文語)로의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난무하는 난장관이 바로 랩소리다. 그 난장판에는 비속어가 단골로 등장하게 마련이고 빠질 수 없는 양면이 바로 '음담패설'이다. '미녀와 야수'는 1996년 현재 노랫말의 해방구에서 벌어지는 아주 절묘한 파티다.

'젓소부인 바람났네'를 비난하며 출렁이는 시간은 양은 얼마나 되는가. 넘쳐나는 성적 담론이 문제일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성적 담론을 '즐기는 나'와 '비난하는 나'의 분열증상일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DJ DOC의 '미녀와 야수'에 대해 속아지는 환호와 비난은 바로 그 같은 '성적 담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열증적 태도를 너무나 절묘하게 보여준다. DJ DOC조차도 조심사레 한 발을 빼려고 안간힘을 쓴다. 명백한 증거 '탈의(脫衣)'가 있는데도 그들은 결코 성적인 의미로 가사를 쓴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권위주의와 엄숙주의라는 '암시양 레짐'은 1996년 가요계의 해방구에서도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이상은 행위 앞에 노예, 권위는 이유없는 참견, 금지된 사랑이라도 난 너를 놓칠 수가 없어... 상상은 목적없는 방향, 인격은 실속 없는 과실, 고상한 품위 앞에 먼저 기회는 날아가버려"

'미녀와 야수'는 일단 도전장을 던졌다. 이성과 권위, 상상, 인격, 품위, 5천년간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해 왔던 덕목에 대한 행위와 사랑 꿈, '일상적 삶'의 도전장이다. KO로 승패가 갈릴지, 대중으로 구성된 심판진이 관중에 골머리를 써야 할지는 아직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치관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당시는 어느 진영에 서려 하는가? 그냥 구경만 해 보겠다고? 그보다는 한 번 글러브를 끼보려는 편이 낫지 않을까? OK? OK!

조병준 (시인·문화평론가)

매아리

부르주아지 승리

름으로 소위 합법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만인에게 언론의 자유는 커녕 진정 언론의 목적을 수행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최근 문화방송의 공정방송시위는 헌 체제안에서 그나마 언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은 몸부림 일 뿐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목적의 이유로 총선을 앞둔 불공정 권파방송의 시정문제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낮은 문화방송의 옛 위상들을 끄는 데서 작은 문

제에만 매몰되어 버리지 않는다는 감도 든다. 또한 언론계별들의 P.C.S(개인휴대음통신)사업 참여 설도 파다하다. 여기에 여전히 청와대, 안기부, 주체로 주요 정치사안을 분석, 홍보지침을 결정하여 언론의 보도 방향을 조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말 교묘한 술책이다. 문민정부란 허울은 과연 끝이 어디인가. ▲다가오는 4월7일 신문의 날에는 개정된 '신문윤리 실천요강'이 발표될 예정이다. 신문지면에 특정 정당지지가 가능한것들 여러 글자로 이제 언론자신의 목소리를 내보겠다는 것이다. 태생이 불분명한 무대위에서 성장한 한국의 여러 언론들이 어디까지 진실을 대변할지, 의구심도 든다.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이 체제하에서 언론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꾀할지 목적을 찾았는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섭)

Comic strip titled '강성수의 이야기' (Kang Seung-woo's Story) with four panels showing a man reading a newspaper and reacting to news about a market and a newspaper.

Advertisement for LG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glasses holding a briefcase, with the slogan '전용기 대기시켜 주세요!' (Please get a dedicated machine ready for me!). The ad includes text about LG's commitment to quality and service, and the LG logo.